

‘시진핑 들었다 놔다’...바빠진 트럼프 트위터

中에 북핵 해결 재차 압박 경제 보복 대신 ‘북핵 빅딜’ 北 도발 땀 군사 대응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전날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북한 정권에 확실한 경고음을 보내는 동시에, 중국에도 다시 한 번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 군대는 증강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군사력 급속 증강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있던 화력시위를 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발 시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트럼프의 트위터 대북 경고 16일(현지시간) 기준

“우리 군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 여기엔 선택의 여지 없다”

“북핵 관련해 중국이 협력하고 있다”

위에 북핵추진 항모전단 칼빈슨호 한반도 해역에 급파한 것은 물론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용단폭격을 가한 데 이어 최근에는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최대 재래식 무기 GBU-43을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처음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 메시지도 거듭 보냈다. 그는 다른 트윗 글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를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 약속에 대한 대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중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지난 6~7일 플로리다 주(州)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에 북핵과 무역 문

제에 대한 ‘빅딜’이 이뤄졌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유보하는 일종의 주고받기식 거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12일 웰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입장을 180도 바꾼 뒤 지난 14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핵 뇌관 다시 트럼프에 넘겼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그 다음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북핵위기의 공을 다시 미국 측에 넘겼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이 열병식과 다음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외부 세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전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중 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간을 공격하고, 대북 독자 행동을 시사한 것은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이틀간 행보는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외부에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현 상황에 대해 “이들 전에는 공이 김정은 측에 있었다면, 지금은 공이 다시 트럼프 측에 넘어왔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이전 압박들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압박을 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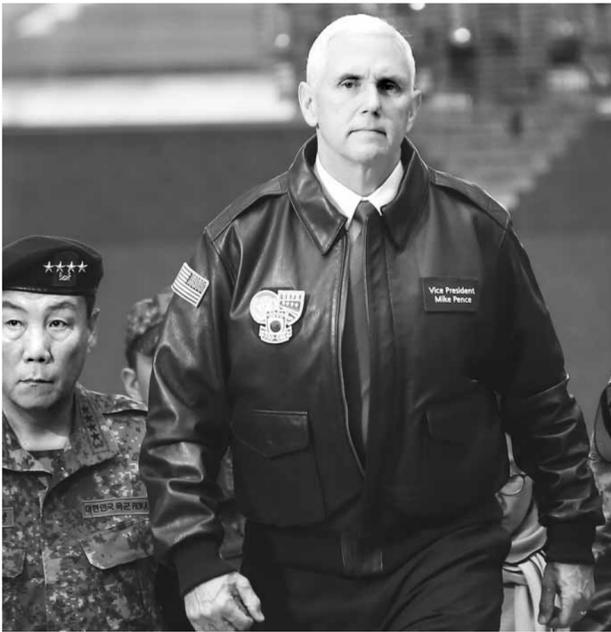
할지 난제를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작은 군사행동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세의 복잡성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환구시보는 이후 상황에 대해 “이 단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유엔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나서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문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2일에도 사평에서 “최근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달 ‘마지노선’을 또 한 번 넘는다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오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북한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며 “모든 대북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78명제상 고경

고경(高穎, 542-607)은 하북성 경현 출신으로 자는 소현이다. 수문제 양견을 도와 수나라 건국과 천하통일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는 북주의 명문 출신으로 부친 고빈은 지방장관인 자사직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행동거지가 반듯하며 그릇이 컸다. 17세때 북주의 제왕 우문현에게 발탁되어 기실 지위에 올랐고 내사상사, 하대부를 역임했다. 양견이 선제의 장인이 되어 대승상의 자리에 오르자 상부상묵의 벼슬을 받았다. 위지형이 반란을 일으키자 평장사가 되어 이를 진압했다. 그 공으로 주국의 작위를 받고 상부사마에 임명되었다. 581년 양견이 황실과 조정의 추천을 받아 나아린 정제

은 규모로 징집해 강남을 습격한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저들은 반드시 병력을 주둔시켜 방어할 것이므로 저들의 추수시기를 놓치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그 계책을 따르니 진나라가 곤궁해졌다. 양소, 하약필, 고려 등이 다되어 강남 평정 계책을 올렸다. 문제가 고경에게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옷의 띠와 같은 불쭉기 하나에 막혀 강남의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589년 수나라는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진나라를 멸하는 과정에서 진 후주 진숙보의 후궁 장려화의 목을 베었다. 이 공으로 제국공이 되었다. 그녀를 자신의 비로 삼으려던 문제의 차남 양광은 이일로 고경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고경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더욱 깊

수문제의 심복...중국 통일에 큰 기여

를 대신해 황제가 되어 수나라를 창건했다. 그는 개국 1등공신이 되고 최고 관직인 상서좌복야 겸 남언에 올랐다. 소위, 양소, 하약필, 한금호 등을 추천해 문제, 양제 시대의 중신이 되도록 배려했다.

양견이 580년 섭정이 되자 경륜과 자락이 뛰어난 고경을 자신의 측근으로 영입하려 하였다. 측근 양해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달하자 양견의 경륜과 영웅적 자질을 높이 사 가까이 그의 신하가 되었다. 상주총독 위지형이 양견의 섭정에 반발해 하북성 업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양견은 위호관과 고경을 파견해 반란을 평정토록 하였다. 581년 양견이 문제가 되자 우경과 함께 내각을 이끌었다. 문제는 수도 장안을 비우게 되면 고경을 남겨 수도를 방위토록 하였다. 그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모함을 하는 자들도 늘어났다. 양견은 “고경은 거울과 같다. 그를 헐뜯는 것은 곧 그를 닦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울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빛나는 법이다”라며 한결같은 신뢰를 과시하였다.

588년 문제는 고경과 강남의 진나라를 토벌할 계획을 논의했다. 고경이 답하기를 “강북은 지역이 추위 발의 수확이 다소 늦고, 강남은 수전이라 곡식이 일찍 익습니다. 저들이 수확할 시기를 헤아려, 군사와 말을 작

어졌다. 고경이 관직을 사양하자 “공은 늘 있는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 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더 이상 긴 말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수 황실은 문제와 독고황후를 이성(二星)이라고 부를 정도로 황후의 발언권이 강했다. 600년 장남 양유이 정실인 원비를 멀리하고 후궁인 윤씨를 총애하자 독고황후는 “처에 박하고 집에 관대한” 장남을 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경은 장남을 폐하고 차남을 황태자로 삼는 것은 사직을 불안케 하는 원인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일로 독고황후와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고경이 상주총독이 되자 독고황후는 후처를 권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했다. 그러나 후일 접에게서 자식을 보자 독고황후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문제가 후궁 문제로 독고황후와 크게 다투고 궁을 벗어나자 “일개 후궁의 일 때문에 천하의 정사를 파할 수는 없다”고 환궁을 재촉했는데 독고황후를 ‘속 좁은 아녀자’라고 말해 크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양주총관 왕세적이 죄를 지어 처벌되었는데 고경이 그와 가까워 명마를 선물로 받았다. 모함을 피하게 되었다. 607년 양광이 수양제가 되었다. 공신 하약필과 함께 조정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였다. 문제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명신의 안타까운 죽음이였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ㅅㅅ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키펜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